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대한민국 서울 연설

“혁신은 샌프란시스코의 과거,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2013.10.21)

김지원 연구원 요약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행사일시

- 행사명 : 제80회 『희망서울 아카데미』 개최계획
- 일시 : 2013. 10. 21(월), 08:00~09:00
- 장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신청사 8층)
- 주최 : 서울시 인력개발과
- 참석대상 : 시장단, 4급이상 간부(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파견 포함), 투자·출연기관장 및 희망직원 등 600여명



Edwin M. Lee

- (현) 제43대 샌프란시스코 시장, 변호사
- (구) 시인권위원회, 구매, 공공사업부 등 책임관
- (구) 시 행정관
- UC Berkeley Law School 졸업

안녕하십니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첫 중국계 미국인 시장으로 이번 한국방문이 처음입니다. 시장이라는 직업으로 시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는 이 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20년 전부터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를 위해 일하면서 5명의 시장을 섬겼습니다. 60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인생을 반추했을 때, 우리는 지난 저의 세대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베트남과 이라크에 대한 반전의 소리를 높였고, 사회적 정의를 위해 새로운 불길을 짚었으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같은 권리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환경보호에 앞장섰고, 미국 전체에서 모든 주민에게 같은 건강보험을 제공한 첫 도시입니다. 샌프란

시스코는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롤모델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시장으로서 저의 목표는 살고 싶고, 살만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장이 되었을 때, 샌프란시스코는 높은 실업률과 2억 5천만 달러라는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업 뿐 만 아니라 관광, 의료, 기술, 바이오테크, 생명공학, 소매업, 전문직, 제조업 등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회복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1월 제가 취임할 당시, 9.5%였던 실업률이 이제는 5.6%로 떨어졌습니다.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3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산업 부문의 성장이 미국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발전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제 인프라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

우리는 이것이 2년 반 전부터 꾸준히 실시한 “경제 인프라(Economic Infrastructure)” 강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샌프란시스코 경제성장 계획에 시정부가 관여한 방법입니다. 종합 지역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 노동계,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샌프란시스코 및 인근지역의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역 개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보다는 기존 지역사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역계획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택지 개발 및 기업의 신 성장동력을 위한 공간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돕기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즉, 교통, 가로경관 및 오픈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에는 사방에 고층 크레인이 작업 중으로, 수천 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다시 취업을 하여 샌프란시스코의 미래를 위해 그들의 땀, 기술 그리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타운을 포함한 각 지역을 연결해주는 중앙 지하철에서 샌프란시스코 항의 크루즈 터미널과 캘리포니아 고속철 및 11개의 다양한 교통수단의 본거지로 예정된 “서부지역의 대(大)중앙역”이 될 트랜스베이 환승센터(Transbay Transit Center)는 샌프란시스코의 교통 시스템을 21세기에 맞춰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승인된 교통센터개발계획(Transit Center District Plan)을 통해 27,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신규주택 4,000호, 호텔 1,000실, 그리고 12에이커의 새로운 부지 그리고 미시시피강 서부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트랜짓 타워(Transit Tower)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1년부터 23.6백만 평방피트의 사무실 공간이 임대되었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3.6백만 평방피트입니다. 이건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트랜스아메리카 피라미드(Transamerica Pyramid) 빌딩 44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새로운 개발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밀히 계획되었고, 지속가능하며, 적합한 장소에서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이익은 샌프란시스코와 주변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공간들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와 일자리가 확보된 도시는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회사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샌프란시스코의 경제는 더욱 성장할 것이며 도시는 더욱 훌륭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용 주택, 아름다운 공원, 안전한 거리, 공공 보건 등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시 정부, 개발업자들, 건설업체 및 건축가들 사이의 협력 사업을 통한 개발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업들 간의 우선순위 및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비전

환경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고의 재활용 시스템 및 쓰레기 재활용율, 전기차 지원, 녹색건축물 기준,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최고의 녹색도시(America's Greenest City)란 명성도 얻게 되었죠. 2012년, 샌프란시스코의 기존 208개의 클린테크 및 그린테크 기업들 외에도 신규 회사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클린테크샌프란시스코(CleanTechSF)를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129개의 바이오테크 및 생명공학 기업들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서게 되어 미션 베이(Mission Bay)의 비전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기반시설은 시장으로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문입니다. 도시의 행정가로서 저는 기반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샌프란시스코의 첫 번째 10개년 개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시의 회에서 공원을 비롯하여 도로포장 및 소방서 정비, 그리고 지진에 대비한 상수도 정비에 이르기까지 약 20억불의 채

권발행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달 신용도를 측정하는 무디(Moody's)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주었는데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역사상 가장 상위 등급입니다. 기반시설의 재건과 강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하면 스포츠를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 챔피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샌프란시스코의 34회 미국 아메리카컵, 포티나이너스(The 49ers)의 슈퍼볼50(Super Bowl 50) 등을 주관했습니다. 이제 올림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스포츠 도시 또는 스포츠의 강자로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스포츠는 도시의 단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기 때문에 도시경제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죠.

샌프란시스코가 활력 넘치는 강한 도시일 수 있는 이유는 창조적인 시민, 시정부의 안정적 재정운영, 그리고 일자리 창출, 기업설립,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입니다. 혁신은 도시를 재건하고 도시의 성장을 유지해주며, 도시의 미래를 보장해줍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정체성인 다양성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다양성은 다른 것들을 참아내는게 아닙니다. 다양성 속의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인식하며, 공통된 인간애 속에서 싸우고, 갈등하며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샌프란시스코를 특별한 도시로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도시로서 샌프란시스코는 아시아와 태평양의 관문도시로 세계 무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는 결국 도시간 협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하이에 첫 지사를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차이나샌프란시스코(China SF)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향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20개의 중국기업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와 2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내년에는 더 다양한 산업들이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차이나샌프란시스코가 남미, 인도,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파트너십의 모델이 되어 샌프란시스코와 더불어 글로벌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는 1,800여개의 첨단기업의 본사가 있으며 약 42,00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래 50%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기업들과 강력한 민관합동 파트너십으로 명석한 IT 두뇌를 활용한 기술 분야의 상공회의소같은 'sf.citi'를 구성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국의 코드(Code for America)' 등의 조직을 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큰 목표로 새일스포스닷컴(Salesforce.com), 엘프(Yelp), 징가(Zynga), 트위터(Twitter), 스퀘어(Square), 오토데스크(Autodesk), 리버베드(Riverbed), 에어비앤비(Airbnb) 등과 같은 첨단기술회사들이 우리 시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고, 추가적으로 Pac-12 엔터프라이즈(Pac-12 Enterprises)와 핀터레스트(Pinterest)와 같은 성장하는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샌프란시스코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잡지에서 미국 최상의 도시(The Best City in America)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명성은 우리의 역사와 도전, 극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혁신을 통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얻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및 경제 분야의 창의성 뿐만 아니라 건강의료, 질병치료에서부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회 서비스 및 사회정의 구현에 이르기까지 샌프란시스코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동참해 준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한인들에게 매우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공헌이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우리가 가진 가장 훌륭한 자산인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21세기를 개척하고 더 나은 도시 및 세계를 위해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샌프란시스코 하계 일자리 플러스'(San Francisco Summer Jobs+)란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에 동참하여 청년 일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하계 일자리 플러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샌프란시스코의 기업, 비영리 기관,

정부기관이 합동하여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유급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 정부 또는 첨단기술회사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고, 무엇보다 6,000명의 청년들이 여름에 기술훈련을 받고,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경험을 우리 도시에서 얻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다음의 내용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광저우, 베이징, 과달라하라, 텍사스의 시골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들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합니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가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희망을 주고,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줄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는 희망과 기회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모국어 가 무엇인지, 어떤 성별을 사랑하는지가 아닌 나의 창조와 성취로 판단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개척자, 혁신가,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자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합니다. 우리는 실패가 두렵지 않고, 현상유지에 만족하지 않으며, 혁신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혁신은 다양한 위상과 부문에서 이루어지며, 물리적인 분야, 행정 분야 등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엑셀레이터, 창업기업의 높은 집중도와 함께 혁신은 앞으로도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 및 시민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혁신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며, 샌프란시스코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샌프란시스코 뿐만 아니라 혁신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세계 변화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에 모두 오셔서 혁신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